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디자인학과의 발전방안 연구

수도권 전문대학 입학전형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irection of Advancement of Design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with focus on the analysis of college entrance process in capital regions

주 저 자 : 김홍규 (Kim, Hong gyu)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khg7060@naver.com

Abstract

Edu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our modern society. However, phenomenon of continuous low birth rate has led to severe shortage of students, particularly for reg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rising from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reby resulting in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secure enrollment of students.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direction for advancement of design department capable of coping with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situations by maintaining continuou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realities of the crisis situation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introduced due to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assessing associated problem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directions to cope with such changes and for the progress of design department were sought through analysis of the changes in enrollment resources for and results of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s well as questionnaire survey on guidance teachers for college admission.

Keyword

School-age population(학령인구), College(전문대학), Enrollment resources(입학자원),
Design department(디자인학과)

요약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 간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감소로 형성된 대학위기 상황의 현실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학과의 발전 방향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변화와 입시 결과분석, 진학 지도교사 설문조사를 통한 대응 방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소규모 모집대학을 제외한 신입생모집 100% 충원율을 달성한 대학은 9개교이며,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의 미충원 인원이 많았다.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추세로 2024년까지는 충원을 감소가 불가피하고 설문조사 결과 전문대학의 인지도와 위상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위협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을 지역경제, 교육 커리큘럼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생존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대학도 실기 위주 정책을 탈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학과 특성화와 현장맞춤형 교육, 취업중심 교육을 통하여 디자인학과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 2-1. 대학입학 전형
- 2-2. 입학자원 변화
- 2-3. 전문대학 입시 결과

3. 조사분석 및 정책 방향

- 3-1. 설문조사 분석
- 3-2.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응
- 3-3. 정부 정책에 따른 대응

4. 디자인학과 현황 및 발전방향

- 4-1. 디자인학과 입시현황
- 4-2. 디자인학과 개선방안

4-3.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7만5815명이 태어났고, 30만776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는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생률도 계속 줄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하고 있다. 현재 출산율은 0.98명 이하로 극단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¹⁾

오늘날 고등교육환경은 줄어든 학령인구로 대학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학생 미충원이 지방대 및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지방대, 전문대에 미충원 인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할 우려 등 고등교육의 붕괴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파괴되는 등 경제적인 악영향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유연한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위기 상황에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디자인학과의 발전 방향 제시에 목적이 있다.

해마다 감소하는 학령인구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대학이다. 학생들이 부족하면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은 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교육부)에서는 일관되고 해결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대학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대학의 학과 특성에 맞는 연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학과의 현황과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디자인계열 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입학 전형

대학은 급변하는 현재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특화된 입학전형을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감소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등직업교육의 방향을 고도화하며 신입생 충원 방향도 새로운 방향으로 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디자인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기 위주의 시험을 병행하며 입시를 준비하고 입학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고 관련 학습의 기회가 늘어나 다양한 학습과 융합교육을 통하여 전공 부적응 학생의 증가와 디자인 분야 취업여건, 디자인 관련 전문직의 높은 벽에 좌절하고 진로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간 학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으로 잦은 학사제도 개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 김승일·유지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 교육 방향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020, p109

[표 1]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출처: 교육부 21.4.26)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1 학년도	267,374명 (77.0%)	80,073명 (23.0%)	347,447명 (100.0%)
2022 학년도	262,378명 (75.7%)	84,175명 (24.3%)	346,553명 (100.0%)
2023 학년도	272,442명 (78.0%)	76,682명 (22.0%)	347,447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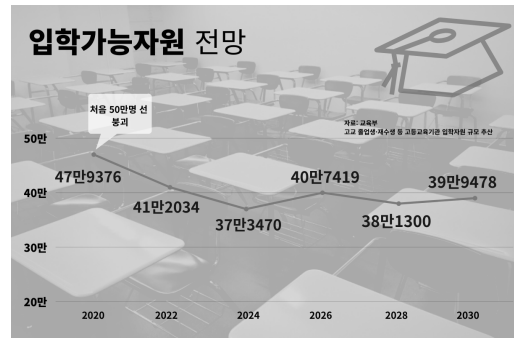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 방안이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등록금 수입으로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²⁾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 방안이 없는 대학은 등록금 수입으로 학생 교육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대학입학 전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생사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입학 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교육부 21.4.26 발표자료인 [표 1]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에서 선발하는 신입생 모집인원은 347,447명이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346,553명으로 894명의 입학자원이 줄었다. 하지만 2022학년도 346,553명이던 모집인원은 오히려 2023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2,571명 늘어난 349,124명이 된다. 2023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 349,124명 중 78.0%인 272,442명 선발하여 수시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0,064명이 증가하여 2.3% 비율이 높아진다. 종합해보면,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 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전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의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 정원 내 선발 비중을 증가시켜 고른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방향이다.

2-2. 입학자원 변화

교육부의 입학 정책이 일관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대학입학 전형 대상자인 학령인구(만18세)는 2020년 51만2000명에서 2021년 47만6000명으로 감소하였

으며, 2030년 46만명, 2040년 28만명까지 감소한다.



[그림 1] 2030년 입학 가능자원 전망 (출처: 교육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그림 1] 2030년 입학 가능 자원 전망과 같이 입학 가능 자원은 2020년 47만 9376명에서 2030년에는 39만9478명으로 학령인구보다 더 감소한다. 현재 4년제 대학 정원은 34만7447명, 전문대학은 20만8327명이다. 합치면 55만5774명이다. 입학 가능 자원은 물론 학령인구 전체를 대입해 봐도 부족하다. 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대학입학 가능 자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21년을 기점으로 입학연령(만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속한 감소를 거쳐 2030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예상된다.

2021년 입시에서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총 2만 6129명의 신입생을 추가 모집했다. 추가모집 인원은 2020년 9830명보다 3배까지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91.4%(2만3889명)가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이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하여 129개 대학 중 정원이 다 채워진 곳은 26(20.2%)개 대학뿐이었다.

2-3. 전문대학 입시 결과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만 4만 명을 넘고 있다. 2024년까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학년도 전문대학 최종 등록률 100% 대학도 지난해 53개교에서 올해 26개교로 감소하였다.

2) <http://news.unn.net> (2020, 05, 20)

[표 2] 수도권 전문대학 최종 등록현황

대학명	입학정원	등록인원	등록률
동양미래대	2,135	2,135	100%
명지전문대	2,527	2,527	100%
인덕대	2,098	2,098	100%
한양여자대	2,487	2,487	100%
서울예술대	581	581	100%
계원예술대	994	994	100%
유한대학	2,017	1,984	98.4%
신구대학	2,355	2,278	96.7%
송의여대	1,460	1,398	95.8%
서일대학	2,125	2,025	95.3%
동서울대학	2,289	2,169	94.8%
수원여자대	1,534	1,324	86.3%
안산대학	1,527	1,183	77.5%
경기과학기술대	1,468	1,117	76.1%
수원과학대	2,236	1,498	67.0%
장안대학	2,367	1,383	58.4%
김포대학	1,249	634	50.8%
두원공과대	1,795	838	46.7%

수도권 전문대학 최종 등록현황 [표 2]와 같이 입학 정원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모집대학을 제외한다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100% 충원율을 달성한 대학은 단 9개교뿐이다. 100% 등록률을 달성한 대학은 동양미래대(서울), 명지전문대(서울), 인덕대(서울), 한양여대(서울), 인하공전(인천), 대림대(경기), 부천대(경기), 서경대(경기), 청강문화산업대(경기) 등 9개교이다. 수도권 여자대학 중 2021년 등록률 100% 대학은 한양여자대학교와 서울여자간호대학 2곳이며 2020년 6개교 모두 100% 충원을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면 4개교가 100% 신입생 충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2학년도 상황도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충원율 감소 추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경기지역의 미충원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일부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학 전형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2회 운영된다. 하지만, 정시모집은 1회 실시한다. 2021년부터 전국의 전문대학들이 수시1차 모집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조사분석 및 정책 방향

3-1. 설문조사 분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입학자원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인한 취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진학 지도교사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대학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20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네이버 form을 통한 설문으로 일반문항 10개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은 350명 중 153명이 답변하여 43.7%의 답변율을 유지하였다.

설문조사자 총 153명 중 남자는 107명 여자는 46명이며 연령은 40대가 46.4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서울 45.10% 경기 54.90%이었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88.24%, 특성화고 7.84%이며 교사 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46.41%였다. 설문내용별 분석은 [표 3] 설문내용 및 분석과 같다.

[표 3] 설문내용 및 분석

번호	설문조사 내용
1	선생님께서 전문대학 진학지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	선생님께서 현재 전문대학의 사회적 인지도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2번의 ①또는 ②에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자만)
4	선생님께서 앞으로 전문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장점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 진학에 대해 요즘의 학생(학부모) 성향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	학생들이 전문대학 진학을 기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실 때 전문대학에 대해 관심 갖는 학생은 어느 정도입니까?
9	학생들이 전문대학 진학을 결심한 시기는 언제쯤이라 생각하십니까?
10	학생들이 전문대학 진학을 결심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분석 1

① 일반대학에 비하여 입학정보와 자료부족	22.22%
② 일반대학 중심으로 대입상담	9.80%
③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	18.95%
④ 전문대학에 대한 무관심	47.06%
⑤ 기타의견	1.96%

설문분석 2

① 매우높다	0.00%
② 높다	5.23%
③ 보통이다	35.95%
④ 낮으면이다	56.21%
⑤ 매우낮다	2.61%

설문분석 3

① 홍보부족	14%
② 교과과정 신뢰부족	4%
③ 승진시 실력보다 학벌 중요	78%
④ 기타	4%

설문분석 4

① 더욱 하락함	22.88%
② 현재와 변함이 없을것	46.41%
③ 점점 높아질것이다	28.76%
④ 기타의견	1.96%

설문분석 5

① 취업률	19.0%
② 현장중심 직업교육	38.6%
③ 낮은등록금	0%
④ 특성화된 분야 운영(예:간호보건 분야 등)	42.5%

설문분석 6

① 학벌 중요 일반대학 진학	48.4%
② 학비 저렴하고 기능중심 폴리텍 진학	3.3%
③ 취업률 높은전공 전문대 진학	38.6%
④ 적성에 맞지 않아 직업훈련 받으려함	7.8%
⑤ 기타	2.0%

설문분석 7

① 부모님 진학 만류	14.4%
② 정보 부족	6.5%
③ 좋은 직장 취업못함	43.1%
④ 낮은 성적 학생들이 진학	30.7%
⑤교육의 질이 떨어짐	4.6%

설문분석 8

① 전교생 중 10%미만	28%
② 전교생 중 10%이상 25%미만	45%
③ 전교생 중 25%이상 35%미만	14%
④ 전교생 중 35%이상 50%미만	8%
⑤ 전교생 중 50%상 70%미만	4%
⑥ 전교생 중 80%이상	1%

설문분석 9

① 고2	2.22%
② 고3 1학기	45.1%
③ 고3 2학기	52.3%
④ 대학 재학 중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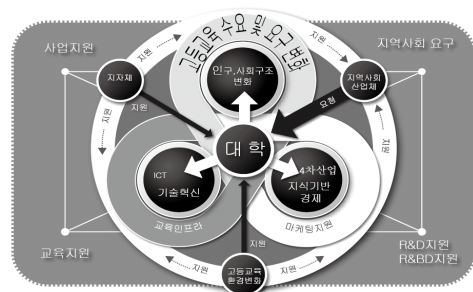
설문분석 10

① 성적	41.52%
② 전공(학과)	19.9%
③ 취업 용이	20.6%
④ 등록금 . 장학금	0.3%
⑤ 기타의견	1.96%
⑥ 지리적 접근성	13.6%
⑦ 주변 사람 권유	3.6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교유형별 분석으로 일반고(88.24%)와 특성화고(7.84%), 기타(3.93%)이며 설문에 참여한 담당 선생님들의 경력은 10년이상 20년 미만 교사경력(46.41%)과 20년이상 30년 미만(33.33%)로 선생님들의 입시경력 분포가 높았다. 분석 결과 중요한 부분은 전문대학에 대한 인지도나 위상이 낮은 편이다 56.21%와 사회적 평판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46.41%)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강점(경쟁력)은 특성화된 분야 운영(간호, 보건 분야) 42.5%와 현장 중심 직업교육(38.6%)이 차지하여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취업률이 중요한 입학전형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3-2.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응

2020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후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정시 선발인원이 늘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하였다. 많은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학교장추천 전형의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이 수도권에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원 및 합격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전문대학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전문대학 수시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이므로 수도권 지역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시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그동안 정시 인원에 많은 인원을 배치했던 전문대학은 수시2차 모집인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학과 위주로 수시1차부터 적극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으며, 실기 위주의 디자인 계열 학과는 비실기전형으로 전환하거나 비실기전형 선발인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 미래사회 변화와 고등교육 환경변화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입학에 관계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림 2] 미래사회 변화와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같이 대학의 생존뿐 아니라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 가능한 범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3-3. 정부 정책에 따른 대응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평가하여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지원(재정)을 끊어 제대로 된 대학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진행한다.

[표 4]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비고
발전 계획 성과	특성화계획, 중장기계획 등 발전 계획	2	규모 고려
	자율지표	2	규모 고려
교육 여건	전임 교원 확보율	15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교육비 환원율	5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대학 운영의 책무성	법인 책무성	4	사립
	구성원 참여·소통	5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교양 교육과정 운영 - 전공 교육과정 운영 - 교수·학습방법 개선	20	규모 고려
	수업 관리 및 학생평가 - 총 강좌 수 - 강의 규모의 적정성 -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 강사 보수 수준 -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	9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학생지원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규모 고려
	진로·심리상담 지원	4	규모 고려
	취·창업 지원	4	규모 고려
교육성과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20	수도권/비수도권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 - 유지 취업률	5	계열/성별/권역
합계		100	

[표 4]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와 같이 기본역량진단은 장학금이나 교수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1년은 학령인구와 연결되는 학생 충원율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여,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막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계에서 요구한 폐교한 대학의 재산을 청산하고 교직원 고용을 보전하는 등의 퇴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용 지원이나 시설 활용 방안, 대학 간 통폐합 지원 방안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2023년도엔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센터'를 만들어 각종 증명서나 소장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을 관리해 관련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³⁾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여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간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부(교육부) 지원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여러 가지 평가지수는 유리하지만, 지방대학에 비하여 수도권대학에 불리한 평가내용이 많아 규모에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선정대학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97개교 3,909.86억원이며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학령인구감소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학생들이 부족해지고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대학들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과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마이스터대학, 신산업 선도 특화 전문대학 사업 등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외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이 부족하고 재원이 줄어들면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학생정원이 유지되어야 시설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 학령인구감소로 대학 정원이 부족하면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디자인 전문대학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입학자의 확보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20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그리고 진로선택과목

3) <https://www.dokdok.co/newsletter-issue> (2020, 5, 23)

으로 구분하여 배우고 있다. 이들 교과목 평가 시 공통 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으로 내신을 산출하지만, 진로선택과목은 A,B,C 3단계의 성취평가등급과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만 표기되므로 성적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방식이 특정 학년 또는 특정 학기의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었다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등급을 산출하는 전체과목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수한 과목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입학전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하면 특성화고의 특성을 알려주는 전문교과의 성적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Z 점수 산출을 고려해야 한다.

4. 디자인학과 현황 및 발전방향

4-1. 디자인학과 입시현황

디자인은 창의력과 드로잉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조형 능력, 컴퓨터활용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등 다양한 수행능력이 필요한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디자인 대학은 대학 입시에서 실기 위주의 학생선발을 탈피하여 다양한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⁴⁾

[표 5] 디자인 대학 입시 현황

연도	입시 전형 방법	주요 내용 및 변화
1994~1996	학생부, 수능, 실기	석고소묘 평면구성
1997~1999	학생부, 수능, 실기	모티브 구성 재료의 다양화
2000~2002	학생부, 수능, 실기	석고상이 포함된 정물수채화 발상과표현
2003~2005	학생부, 수능, 실기	발상과표현 석고정물수채화 학생선택권 증가
2006~2010	학생부, 수능, 실기, 비실기, 입학사전관전형	발상과표현 소묘 수채화 사고의 전환 대학별(다양한 유형) 실기 신설
2010~2020	학생부, 수능, 실기, 비실기, 입학사전관전형, 미술활동보고서, 면접	발상과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연필소묘

4) 김임주, 디자인대학 입시에서 비실기전형의 현황, 디자인학연구, 2011, p155

2012년부터 홍익대학교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정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반영하고 미술 활동 보고서라는 미술의 전반적인 관심도와 고교생활 중의 미술 활동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선발하고 있다.⁵⁾ 현재 디자인 대학 입시는 [표 5] 디자인 대학 입시 현황과 같이 사고의 전환(홍익대학교)과 발상과 표현(국민대학교), 기초디자인(건국대학교)이 정착되어 대부분의 실기 위주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외 개별대학에서 기초소양 실기평가와 기초디자인의 변형된 다양한 평가 방식 등이 개발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전문대학은 그동안 실기학과와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지역 2.3년제 디자인계열 대학의 입시 현황을 보면,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정시 소묘시험 위주로 실기전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덕대학이 발상과 표현, 정밀묘사 기초디자인, 칸 만화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표 6] 디자인계열 실기반영 및 전형 방법과 같이 실기를 시행하는 대학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6] 디자인계열 실기반영 및 전형 방법

대학	디자인계열학과	실기내용 및 전형방법
인덕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웹툰만화창작학과	발상과표현, 정밀묘사 기초디자인, 칸만화 (자유주제) 실기(80%)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리빙세라믹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게임&VR디자인학과	비실기 전형 수능, 학생부 전형
명지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기초디자인 실기 (70%)
	패션 리빙디자인과 뷰티패션융합과	
동양미래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과	비실기 전형 수능, 학생부 전형
승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영상제작과	비실기 전형 수능, 학생부 전형
서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생활가구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VMD디자인과	비실기 전형 수능, 학생부 전형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실기 (60%)
	인테리어디자인과 세라믹디자인과 니트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비실기 전형 수능, 학생부 전형

5) 정옥진, 미술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7

서울예술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발상과표현, 기초디자인 사고의전환, 실기 (수시80%)(경시:시 각 60% 공간 70%)
	사진	촬영실기(50%)포트폴 리오(30%)
계원예술 대학교	공간연출과 외 3개학과	서류위주 (포트폴리오)
	사진예술과	서류+면접전형
	광고 브랜드디자인과 9개 학과	면접(100%) (포트폴리오)
	게임미디어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리빙디자인과 산악디자인과 화훼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전시디자인과	소요(연필) 경시모집 실기 (100%)
	리빙디자인과	비실기 전형 수능(100%), 학생부

4-2. 디자인학과 개선방향

입시실기시험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그동안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됐다. 현재 입시 미술 실기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대부분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연필소묘 등이다. 전문대학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 시행하고, 전문대학 학생에게 맞는 독자적인 전형방안을 모색하여 기초실기의 강화와 동시에 학업성취도를 높여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을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따라서 대학에는 입학율이 포함된 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디자인학과에서도 유지충원율을 맞추기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학과의 개선 방향은 산학 맞춤형 교육과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현장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다양한 현장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디자인 분야의 진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학과 특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실기전형은 개별대학에서 인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입학전형 과정이었다. 하지만 입학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지나친 패턴과 형태로 창의력이 실종되어 개별적으로 대학들이 입시 미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문제로는 주요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으로 편성되어 현재의 기능훈련과 실기 위주의 교과과정을 사용자(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을 제고 방안으로 디자인학과를 개편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표 7] 입시미술과 교과과정 문제점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입시 미술	- 암기화된 패턴 - 학원(사교육) 중심 입시교육	- 다양한 선발 방법 개발 - 창의성 위주 평가
교과 과정	- 기능훈련 및 실기 위주 교육 - 프로그램 위주 단순 반복 교육	- 이론 및 산업체 연계 교육 -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교육 - 사용자(소비자) 중심 디자인교육 - 토론식 문제해결 방법제시

2021년 입시 미술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주요 전문대학의 경쟁력과 입학률은 지방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의 변화는 입시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부족 등 교육 여건의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7] 입시미술과 교과과정 문제점 개선 방향과 같이 암기화된 패턴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선발 방법개발과 창의성 위주의 평가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과정 또한, 프로그램 위주 단순 반복 교육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이론 및 산업체 연계 실무교육과 사용자(소비자) 중심 디자인교육, 토론식 문제해결 방법제시로 변화하여야 한다.

4-3.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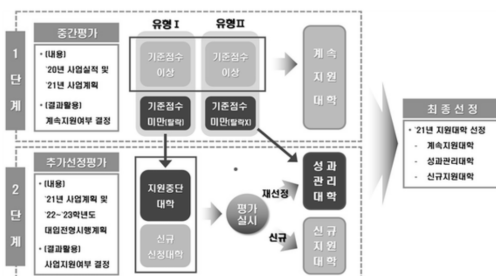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 [표 8]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과 같이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6)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보도자료, 2021, 5, 20

[표 8]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출처 : 교육부)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재정지원 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신청 대학 중 일부 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자율혁신 대학 - 일반재정 지원대학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특성화 강화,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위험대학 관리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컨설팅 지원 • 유지충원을 점검 • 정원 조정 유연화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 등 전환 지원

첫째,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 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등은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림 3]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대입 전형 공정성 제고와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협력기반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과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활용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림 3]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01년 사이버대학에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은 일반

대학과 디자인 대학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보편화 되고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온라인을 통한 디자인교육은 실기교육 위주의 특성상 교수자와 학생 모두 선호하지 않았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이론교육의 중요성과 융합 교육이 실현되면서 양적,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활용한 취업 활성화는 산학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결 가능하다. 취업 교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교육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취업·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수준별·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류 취업 지원체제 구축과 산학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정립이 선행 조건이다.⁷⁾ 또한, 교육제도 개편 및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학과와 교과목은 실습 교육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직무 적합형 실습실을 운영하여 실험 실습 교육의 내실화와 교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목 간 연계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⁸⁾

5. 결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자원의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충원이 어려워진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 권역별로 학생 충원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한계 부실 대학을 지정하여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한다. 현재 권역별 구조조정 계획으로 이를 대비해야 하는 수도권 전문대학 디자인학과는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을 종합하면 전문대학의 수요자인 고등학생과 학부모, 설문에 참여한 진로 교사들의 사회적인 인식과 평판, 기피 이유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문대학의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와 사회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편과 디자인학과와 입학지원 성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화 흐름과 국내상황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에 개설된 디

7) 김홍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성장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19, p58

8) 김홍규, 산업디자인 교과과정을 위한 산학맞춤형 교육과정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8, p83

자인학과와 차별화한 경쟁력 우위를 갖도록 하는 유연한 학생선발 기준을 만들어 다양한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학과는 필연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위주 학과로 변화 하여야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향후 수도권 전문대학 디자인학과와 건실한 운영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선과 변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길임주, 디자인대학 입시에서 비실기전형의 현황, 디자인학연구, 2011, Vol.24, No.2
2. 김승일유지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 교육 방향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020, Vol.19, No.4
3. 김홍규, 산업디자인 교과과정을 위한 산학맞춤형 교육과정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8, Vol.32
4. 김홍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성장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19, Vol.4, No.2
5. 정옥진, 미술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 5, 20
7. <https://www.dokdok.co>
8. <http://news.unn.net>